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II

변화하는 가족에 대응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속가능성과 혁신



| 일 시 | 2017. 9. 27. (수) 14:00-16:3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별관 2동 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 | 공동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II

변화하는 가족에 대응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속가능성과 혁신



| 일 시 | 2017. 9. 27. (수) 14:00-16:3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별관 2동 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 | 공동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10주년 기념 심포지엄II

변화하는 가족에 대응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속가능성과 혁신

- ☐ 일시 : 2017. 9. 27.(수) 14:00-16:30
- ☐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별관 2동 2층)
- ☐ 주최 : 서울특별시
- ☐ 주관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순서	시간	내용
사전등록	13:40-14:00	등록
1부 개회식	14:00-14:15	개회 및 국민의례
		개회사: 김명신(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인사말: 박양숙(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2부 심포지엄	○ 심포지엄 및 토론회 사회 : 김명신(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14:15-15:00	○ 발제 1 : 서울시 가족정책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서울시민의 인식도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향(인천대학교 송다영 교수/단국대학교 장수정 교수/인천대학교 백경흔 연구원) 송다영(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2 : 서울시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향 장진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15:00-16:00	○ 종합토론 - 강남식(젠더와인권연구소 소장) - 강선미(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정책팀 팀장) - 김수현(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 오수현(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대표)
	16:00-16:30	○ 종합토론(청중 질의응답)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특별시, 서울’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명신입니다. 서울시센터는 2007년 10월 개소하여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2004년 2월 제정된 이래, 서울시는 용산구시범센터를 시작으로 광역시 중 가장 먼저 25개 모든 자치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시 25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컨트롤 타워로서 여성가족부의 비전과 정책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가족정책 추진 전달체계를 확보하고 가족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서울시 차원의 가족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에 앞장섰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자 가족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가 위탁운영하며 시민자치문화 활동의 진흥을 위해 서울시 가족정책에 기반을 두고 서울시 모든 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가족지원 나눔 서비스를 통한 돌봄문화 확산과 가족친화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과 협치를 통해 “전환기 부모교육”과 “10대를 위한 예비부모교육”의 경우 올바른 부모관에 대하여 정립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많은 성과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서울가족의 가족환경은 급격한 변화 속에 있습니다. 가족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 정책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변화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사회문제의 출발점은 가족의 문제이고 가정이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다른 새로운 혁신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족공공성과 지역공동체, 사회혁신' 이 그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가족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가족위기를 예방하고자 가정의 건강성과 가족친화 사회를 실현하는 가족사업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내 가족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가족 여러분들에게 기대어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10주년의 발걸음을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과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서울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 명 신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10주년 기념 심포지엄II

“변화하는 가족에 대응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속가능성과 혁신”

Contents

발표자료 1	서울시 가족정책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서울시민의 인식도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향 송다영(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발표자료2	서울시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향 장진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	23
종합토론	강남식(젠더와인권연구소 소장)	-----	43
	강선미(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정책팀 팀장)	-----	47
	김수현(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	51
	오수현(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대표)	-----	55

발표자료 1

**서울시 가족정책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시민의 인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향**

송다영(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

장수정(단국대 사회복지학 교수)

백경훈(인천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송 다 영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시 가족정책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시민의 인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향

송다영(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
장수정(단국대 사회복지학 교수)
백경훈(인천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연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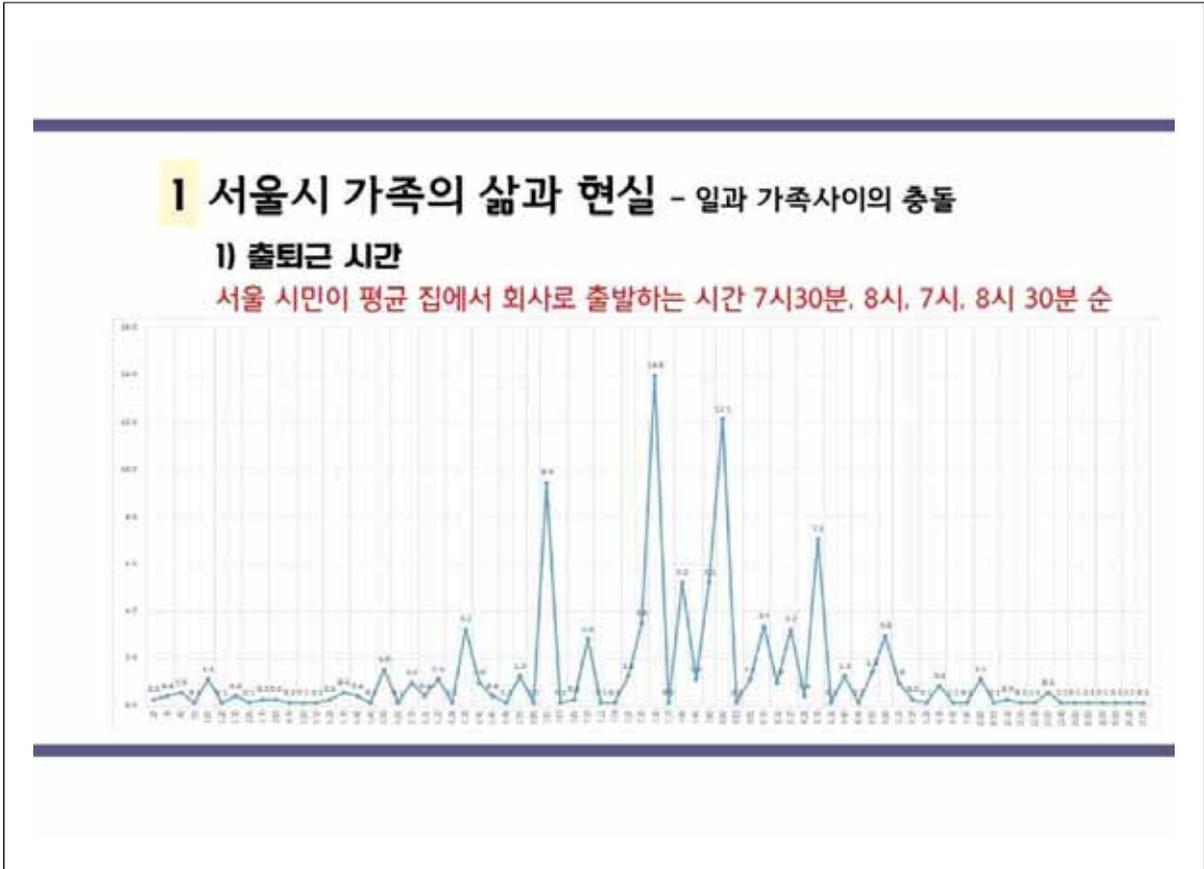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인구 천만의 도시, 서울, 메트로폴리탄 광역도시
-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돌봄 위기와 일가족양립의 어려움
- 다양해지는 가족, 개인의 삶의 방식 다원화에 따라 정책 민감성 (sensitivity) 요구

-서울시는 다양한 가족정책과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 센터도 가족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제공해오고 있음. 그러나 실제 시민들에게 제대로 인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수행된 적 없음. 인지도와 요구도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향 모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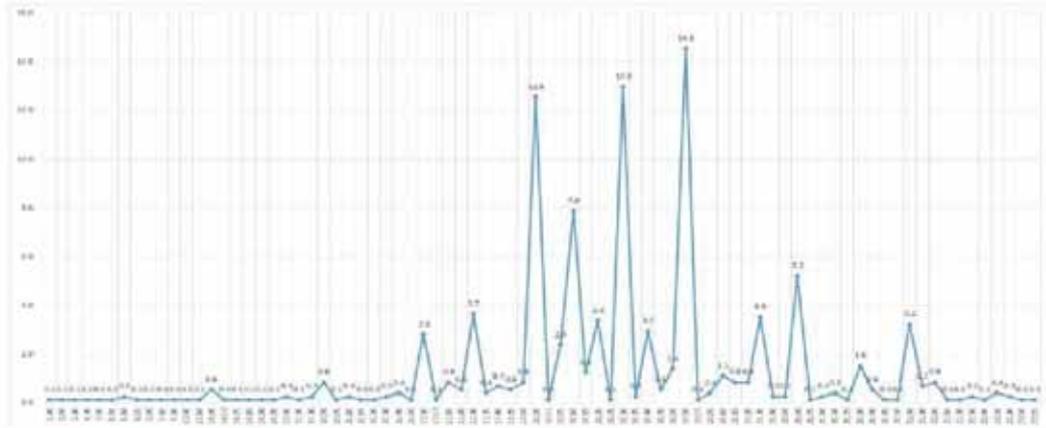
2 연구방법

- 설문지 항목구성: 서울시 가족보고서인 [희망서울 행복가족] 에 나온 세부 가족정책 부문별로 작성
 -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족대상 설문지조사
 - 확률 표본에 근거, 2017년 8월-9월 실시
 - 최종 1,007명 조사
 - 설문지 조사 이외에, 전문가 자문회의, 문헌고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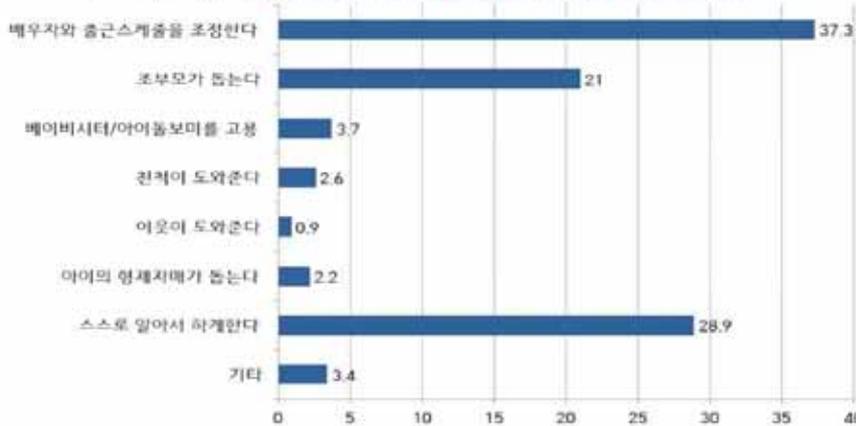
1 서울시 가족의 삶과 현실 - 일과 가족사이의 충돌

1) 출퇴근 시간 - 평균 퇴근시간 7시, 6시30분,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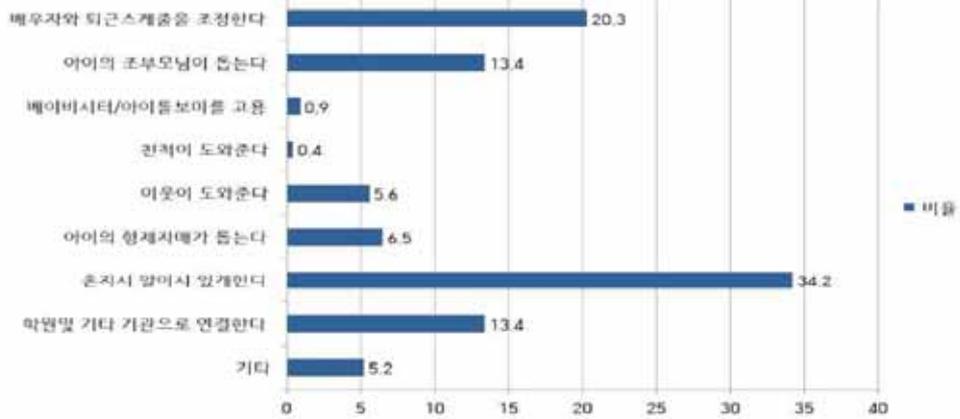
1 서울시 가족의 삶과 현실 - 일과 가족사이의 충돌

3) 아침 출근시간과 자녀들의 등원/등교시간 불일치 해결방법 : 부모가 조정하는 경우 37.3%, 조부모 21%, 혼자서 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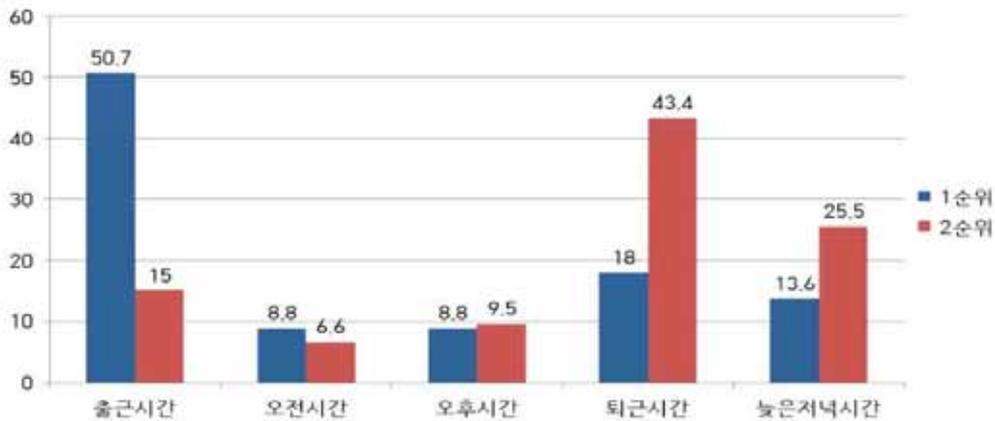
1 서울시 가족의 삶과 현실 - 일과 가족사이의 충돌

4) 퇴근 시간과 자녀의 하원/하교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
 : 혼자서 알아서 34.2%, 학원 등 13.4% -> 나홀로 아동, 학원 과잉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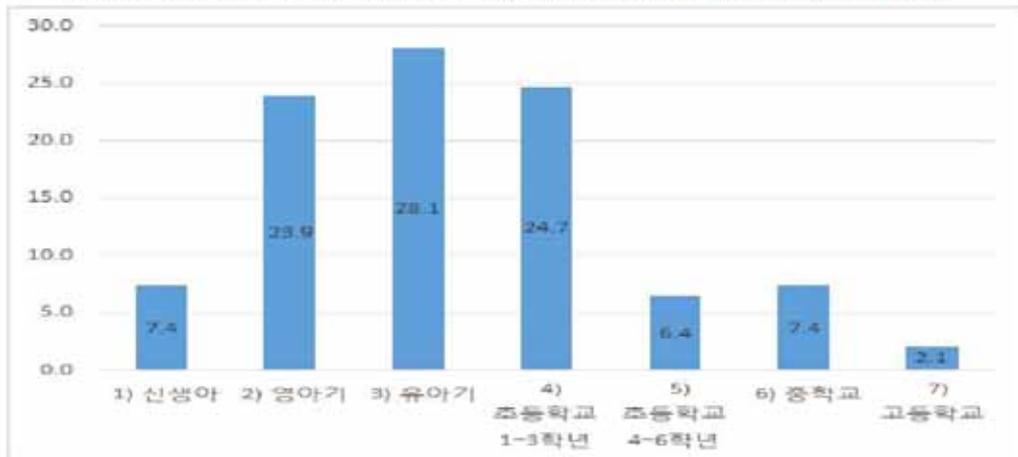
1 서울시 가족의 삶과 현실 - 일과 가족사이의 충돌

5) 하루 중 시간충돌이 가장 많은 시간: 출퇴근, 여성이 높은 시간충돌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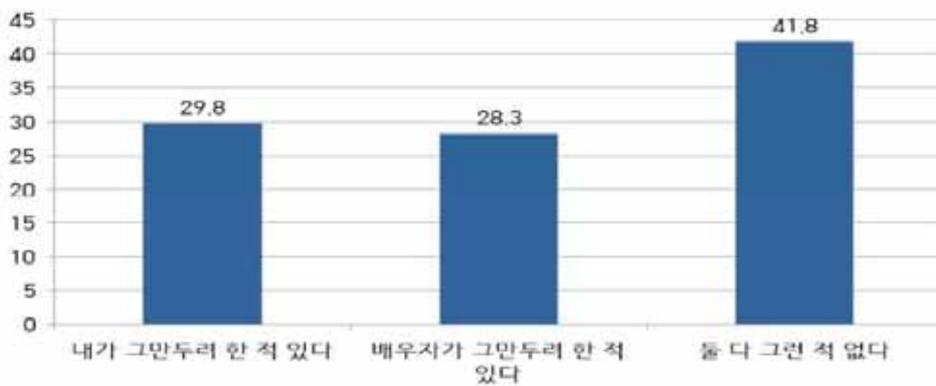
1 서울시 가족의 삶과 현실 - 일과 가족사이의 충돌

6) 시간 충돌 경험이 가장 많았던 자녀양육 시기-영유아기, 초등저학년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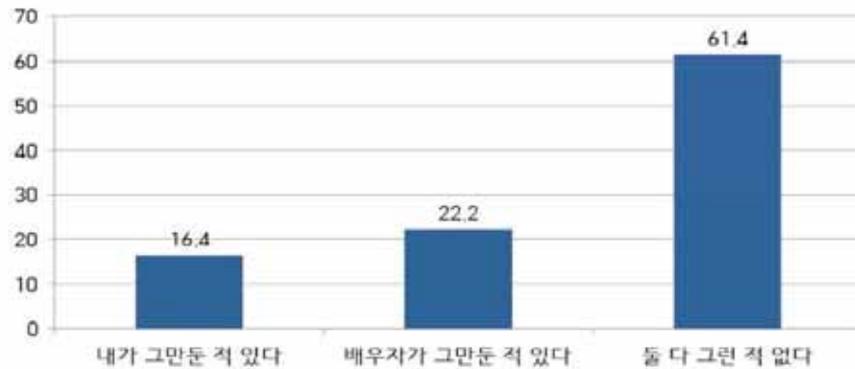
1 서울시 가족의 삶과 현실 - 일과 가족사이의 충돌

7) 시간 충돌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려고 고려한 의사: 58% 고려한 적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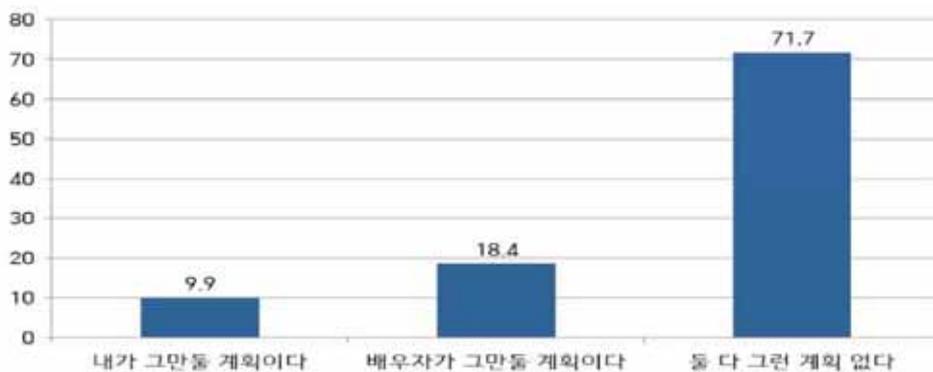
1 서울시 가족의 삶과 현실 - 일과 가족사이의 충돌

8) 귀하(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시간 충돌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 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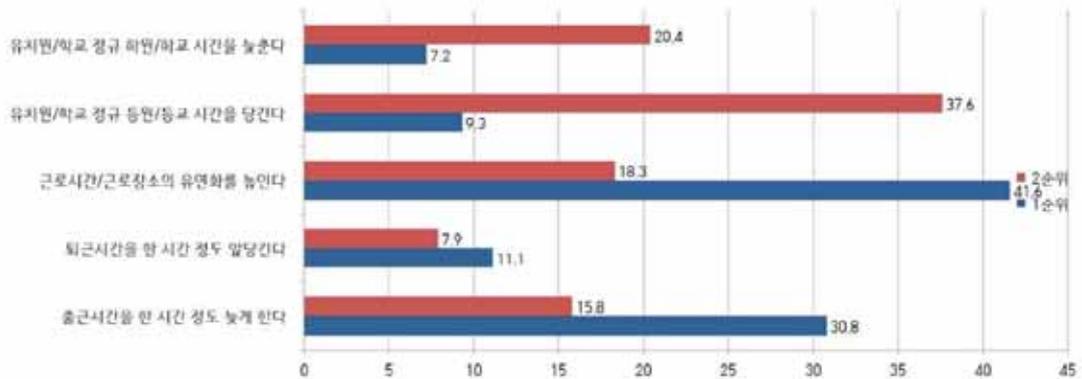
1 서울시 가족의 삶과 현실 - 일과 가족사이의 충돌

9) 시간 충돌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둘 계획에 대한 여부: 28.3%



1 서울시 가족의 삶과 현실 - 일과 가족사이의 충돌

10) 시간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 요구사항: **근로시간, 등하교시간 등**



2 서울시 가족정책 현황

1) 돌봄관련 정책

사업명	설명
1. 국공립 어린이집 실질적 확대	2015년-2018년까지 총 1,000개소 확충(국공립어린이집의 20-30% 목표 달성)
2. 우리동네 보육반장	육아와 관련된 물적·인적 자원을 서로 잘 연계하고 관리하여 모든 양육자에게 One-stop으로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	60세 어른들의 등·하원 동행 및 돌봄, 부모의 긴급외출 또는 부모 질환 시 일시 돌봄, 부모모임 활동 시 동행자녀 집단 돌봄 제공
4. 긴급 보육거점시설 운영	어린이집 이용 유무 상관없이 22시까지 이용 가능
5.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가정방문 후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는 서비스
6. 공동육아 공동체 지원	지역에 기반한 공동 커뮤니티 형성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지역 내 다양한 보육자원과 기회를 연결하는 돌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7.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저매 등 노인성 질환 노인을 돌보는 주야간 보호시설,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케어, 안심케어, 응급상황 등을 관리
8. 서울요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노인대상 국공립 요양원 운영

2 서울시 가족정책 현황

2) 일가족양립정책

사업명	설명
1. 직장부모 커뮤니티 활동지원	직장과 지역에서 일하는 부모가 스스로 만든 다양한 활동모임을 지원
2. 기업의 일가족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기업의 일가족양립 문화를 진단 및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
3.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가족내 의사소통을 활성화 하고 가족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
4. 부자유친 골목담사 프로그램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한양도성 골목담사, 골목놀이
5. 일생활균형 인식개선위한 888캠페인	8시간 쉬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즐기고를 모토로 하는 캠페인
6. '가정의 날' 정시 퇴근문화	서울시 직원 대상으로 정시퇴근 문화를 위해 수요일 마다 '가정의 날' 운영

2 서울시 가족정책 현황

3) 가족(지원)서비스 지원정책

기관명	설명
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각종 가족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2. 직장맘지원센터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직장맘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일가족양립이 가능한 사회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기관
3. 50플러스 센터	50+세대(50-64세)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인생설계를 지원하는 기관
4.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일자리의 창출을 목표로 취업상담, 직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취업을 지원하는 기관
5.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일·가족양립을 위한 연구, 인식개선 및 문화조성 캠페인, 기업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기관
6.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기관
7.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와 우리모(미혼모), 미혼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
8. 너너우리한가족센터	미혼한부모가족의 위기임신, 자립, 아동양육,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제적 지원, 상담, 교육, 지원연계, 제도개선 및 사회인식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민자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기관
10. 자살예방센터	자치구 자살예방 실무자 대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살예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자살예방 전달인력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살예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11. 패밀리 사이트	서울시 가족 종합 포털 서비스로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맞춤형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

2 서울시 가족정책 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지원서비스 대표적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분포와 전반적 경향

서울시 가족정책에 대해서는 부문을 가리지 않고 대체로 여성들이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비스 인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주 뚜렷한 경향은 아님. 연령적으로는 30대가 더 높게 나타나지만 이 또한 뚜렷한 경향은 아님. 지역적으로는 거의 인지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 서울시의 아동과 노인을 위한 돌봄정책에 관한 인지도와 요구도

1) 서울시 아동과 노인 대상 돌봄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 대체로 인지도 높음. 특히 보육 관련해서는 높음. 노인관련한 돌봄도 인지도 높음.

구분 사업명	전혀 모름	잘 모름	보통임	잘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 국공립 어린이집 실질적 확대	55(5.4)	250(24.3)	426(41.5)	274(26.7)	22(2.1)
2. 우리동네 보육반장	232(22.6)	410(39.9)	277(27.0)	98(9.5)	10(1.0)
3. 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	242(23.6)	404(39.3)	249(24.2)	114(11.1)	18(1.8)
4. 긴급 보육거점시설 운영	244(23.8)	380(37.0)	283(27.6)	107(10.4)	13(1.3)
5.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197(19.2)	302(29.4)	313(30.5)	189(18.4)	26(2.5)
6. 공동육아 공동체 지원	207(20.2)	356(34.7)	322(31.4)	127(12.4)	15(1.5)
7.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158(15.4)	281(27.4)	356(34.7)	201(19.6)	31(3.0)
8. 서울요양원	156(15.2)	314(30.6)	378(36.8)	157(15.3)	22(2.1)

2 서울시의 아동과 노인을 위한 돌봄정책에 관한 인지도와 요구도

2) 서울시 돌봄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 대체로 긍정적 평가. 여성이 후한 평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아동을 위한 보육정책	22(2.1)	157(15.3)	570(55.5)	271(26.4)	7(0.7)
노인을 위한 돌봄정책	16(1.6)	131(12.8)	591(57.5)	273(26.6)	14(1.4)

2 서울시의 아동과 노인을 위한 돌봄정책에 관한 인지도와 요구도

3) 서울시가 향후 더 집중했으면 하는 돌봄 정책들에 대한 우선순위

- 압도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노인돌봄 서비스와 국공립요양시설 확대.



3 일가족양립정책에 관한 인지도와 요구도

1)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 및 일가족양립 관련 사업 인지도

- 대체로 낮은 인지도, 실제 적용대상이 있는 경우에 인지도 높게 나타남

구분 사업명	전혀 모름	잘 모름	보통임	잘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 직장부모 커뮤니티 활동지원	249(24.2)	433(42.2)	268(26.1)	73(7.1)	4(0.4)
2. 기업의 일가족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265(25.8)	430(41.9)	239(23.3)	84(8.2)	9(0.9)
3.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281(27.4)	375(36.5)	260(25.3)	96(9.3)	15(1.5)
4. 부자유친 골목답사 프로그램	362(35.2)	415(40.4)	187(18.2)	49(4.8)	14(1.4)
5. 일생활균형 인식개선위한 888 캠페인	348(33.9)	409(39.8)	193(18.8)	63(6.1)	14(1.4)
6. '가정의 날' 행사 최근문화	159(15.5)	259(25.2)	333(32.4)	219(21.3)	57(5.6)

3 일가족양립정책에 관한 인지도와 요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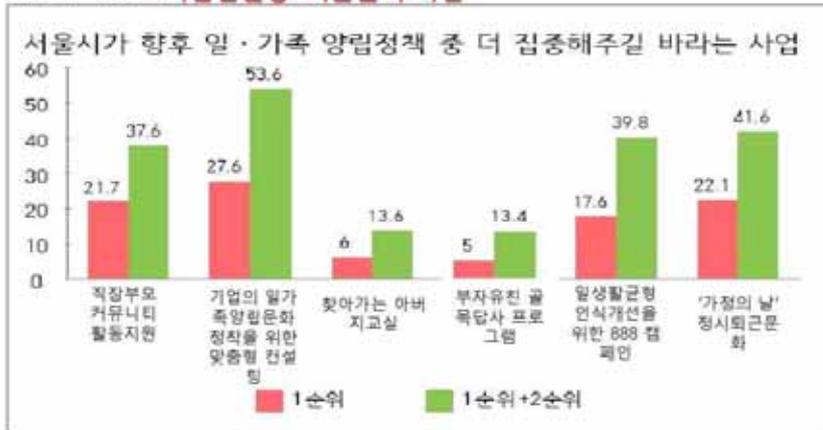
2) 서울시 일가족양립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연령별 서울시 일가족 양립정책에 대한 인식-실제 정책 대상자(30,40대)는 낮은 평가

구분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n (p)
일가족양립정책	20대	0(0.0)	4(30.8)	6(46.2)	3(23.1)	0(0.0)
	30대	21(6.5)	80(24.6)	175(53.8)	45(13.8)	4(1.2)
	40대	19(2.9)	120(18.5)	383(59.2)	120(18.5)	5(0.8)
	50대	1(2.4)	3(7.1)	27(64.3)	10(23.8)	1(2.4)
	전체	41(4.0)	207(20.2)	591(57.5)	178(17.3)	10(1.0)

3 일가족양립정책에 관한 인지도와 요구도

3) 서울시가 향후 더 집중했으면 하는 일가족양립정책들에 대한 우선순위 : 기업컨설팅, 퇴근문화 확산



4 사회적 취약계층 가족지원 정책

1) 대상별 가족지원정책 인지도

서울시 가족유형별 가족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다문화가족은 긍정적, 1인가구는 대체로 부정적.

구분 지원받는 가족유형	매우 못 한다	잘 못한다	보통임	잘 한다	매우 잘한다	잘 모름
1. 한부모 가족	21(2.0)	145(14.1)	521(50.7)	245(23.9)	56(5.5)	39(3.8)
2. 미혼모 가족	44(4.3)	246(24.0)	462(45.0)	196(19.1)	38(3.7)	41(4.0)
3. 다문화 가족	23(2.2)	139(13.5)	414(40.3)	340(33.1)	78(7.6)	33(3.2)
4. 장애인 가족	46(4.5)	241(23.5)	450(43.8)	203(19.8)	44(4.3)	43(4.2)
5. 1인 청년가구	35(3.4)	239(23.3)	540(52.6)	133(13.0)	26(2.5)	54(5.3)
6. 1인 여성가구	40(3.9)	255(24.8)	539(52.5)	111(10.8)	27(2.6)	55(5.4)
7. 1인 노인가구	63(6.1)	283(27.6)	456(44.4)	141(13.7)	36(3.5)	48(4.7)

4 사회적 취약계층 가족지원 정책

2) 취약 가족지원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전원새born지원센터, 취약층 가족지원센터



5 서울시 각종 가족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와 성과에 대한 평가

1) 서울시 가족지원센터들에 대한 인지정도

-여성능력개발원, 안부모, 다문화는 많이 알고 있음. 반면 건강센터나 패밀리사이트 인지도는 낮음

구분 기관명	전혀 모름	잘 모름	보통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 건강가정지원센터	153(14.9)	383(37.3)	338(32.9)	133(13.0)	20(1.9)
2. 직장맘지원센터	181(17.6)	380(37.0)	314(30.6)	141(13.7)	11(1.1)
3. 50플러스 센터	277(27.0)	411(40.0)	229(22.3)	95(9.3)	15(1.5)
4. 여성능력개발원	81(7.9)	231(22.5)	371(36.1)	299(29.1)	45(4.4)
5. 일가족양립지원센터	219(21.3)	432(42.1)	278(27.1)	87(8.5)	11(1.1)
6. 육아종합지원센터	131(12.8)	330(32.1)	355(34.6)	177(17.2)	34(3.3)
7. 안부모가족지원센터	127(12.4)	281(27.4)	379(36.9)	214(20.8)	26(2.5)
8. 나너우리한가족센터	300(29.2)	450(43.8)	210(20.4)	58(5.6)	9(0.9)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4(7.2)	237(23.1)	398(38.8)	276(26.9)	42(4.1)
10. 자살예방센터	131(12.8)	323(31.5)	360(35.1)	189(18.4)	24(2.3)
11. 패밀리 사이트	303(29.5)	419(40.8)	248(24.1)	49(4.8)	8(0.8)

6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에 관한 인지도와 요구

1)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인지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정도-아이돌보미, 공동육아 높음

구분 프로그램 명	전혀 모름	잘 모름	보통임	잘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 예비부부 교육 프로그램	227(22.1)	412(40.1)	284(27.7)	91(8.9)	13(1.3)
2.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교육	233(22.7)	424(41.3)	273(26.6)	89(8.7)	8(0.8)
3.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244(23.8)	401(39.0)	272(26.5)	93(9.1)	17(1.7)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풍앗이	217(21.1)	396(38.6)	295(28.7)	103(10.0)	16(1.6)
5. 아이돌보미사업	132(12.9)	293(28.5)	368(35.8)	203(19.8)	31(3.0)
6. 이혼 전·후 상담	262(25.5)	444(43.2)	254(24.7)	61(5.9)	6(0.6)
7. 부부관계상담	196(19.1)	411(40.0)	322(31.4)	86(8.4)	12(1.2)

6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에 관한 인지도와 요구

2) 이용도 및 만족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 여부- 낮은 이용율, 높은 만족도

구분 프로그램 명	IV2-1. 이용 여부		IV2-2. 만족 여부	
	인지한 자 (N=1027)	이용자	불만족한 편	만족한 편
1. 예비부부 교육 프로그램	348(37.8)	40(10.3)	11(27.5)	29(72.5)
2.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교육	319(36.0)	51(13.8)	13(25.5)	38(74.5)
3.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342(37.2)	40(10.5)	14(35.0)	26(65.0)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풍앗이	378(40.3)	36(8.7)	9(25.0)	27(75.0)
5. 아이돌보미사업	528(58.6)	74(12.3)	14(18.9)	60(81.1)
6. 이혼 전·후 상담	304(31.3)	17(5.3)	4(23.5)	13(76.5)
7. 부부관계상담	382(40.9)	38(9.0)	11(28.9)	27(71.1)

6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에 관한 인지도와 요구

3) 향후 집중했으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압도적으로 아이돌보미 사업과 자녀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교육, 공동육 아나눔터 등



결론

1 조사결과 요약

1) 서울시 가족정책 인지도

- 대체로 낮은 편,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 그러나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높은 인지도, 높은 우선순위 (보육, 노인돌봄).

2)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인지도 낮은 편, 이용도도 낮은 편, 그러나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음.
 - 아이돌보미 사업, 가족교육에 대한 인지도, 공동육아나눔터 등 자녀돌봄과 관련된 우선순위 요구 높음.
 - 전반적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보임.
-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 1) 보육 및 돌봄 정책에 대한 내실있는 확대. 아동에 대한 돌봄은 영유아기에 제한하지 말고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2) 일가족양립 정책은 프로그램, 개별 사업을 넘어서 제도화를 결합하는 것이 요구됨.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확대할 것.**
 - 3)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동돌봄에 대한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 아동돌봄 관련 안전보장, 시간다양화,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감액 조치, 특히 한부모가족, 맞벌이 가족 등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요구됨.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결합할 필요 있음. 또한 자녀를 키우는 가족에 대한 부모자녀교육, 부모 교육 등 **가족교육 내실화 지원**
-

감사합니다

발표자료 2

서울시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장 진 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서울시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장진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I. 들어가며

최근 인구사회학적 변화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1인가구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520만 가구가 1인가구이며, 이는 전체 가구의 27.2%로 가구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시에서도 1인가구 수는 주목할 만 한 증가를 보여왔다. 1990년 25만 7천 가구에 불과했던 1인가구 수가 2015년에는 네 배 이상 증가하여 무려 111만 6천 가구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서울시 1인가구의 비중이 2025년에는 29.8%, 2035년에는 30.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정책은 다인(多人)가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1인가구는 정책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표.28〉 전국,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1인가구 수 추이 및 증감률(1990-2015)

구분	1990	2000	2005	2010	2015
전국	1,021,481	2,224,433	3,170,675	4,142,165	5,203,440
서울특별시	257,382	502,245	675,739	854,606	1,115,744
부산광역시	77,230	154,237	222,515	290,902	361,749
대구광역시	59,890	107,913	148,331	192,472	239,517
인천광역시	38,321	97,127	141,511	190,882	243,678
광주광역시	23,350	60,207	87,447	122,506	163,577
대전광역시	20,327	62,742	98,678	134,938	169,391
울산광역시	-	42,532	57,923	77,421	103,55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한편, 1인가구에 대한 기존 담론과 선행연구들의 경향 중 첫 번째는 1인가구를 대체로 사회적 고립대상으로 본다는 점이다.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1인가구에 대한 이미지는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로 대표되며 이로 인해 1인가구는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대상으로 비추어진다. 또한 다인가구만을 정상가구로 여겨 1인가구를 비정상 가구로 바라보거나,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1인가구의 증가로 진단한다. 이로 인해 1인가구에게 무조건적인 혼인을 강요하거나,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다루고자 하는 논의가 일어나기도 한다. 본 발제는 서울시 1인가구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논의들을 점검함과 동시에 서울시 1인가구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서울시 1인가구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서울시 1인가구 생활실태

1. 1인가구의 삶

□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개인적 편의와 자유, 혼인상태 변화로 1인가구 유입

청년 1인가구는 주로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로 인해 1인가구로 유입되며, 고령 1인가구는 사별이 주요 유입경로이다. 그러나 중장년 1인가구는 비혼, 이혼, 사별 등 다양한 혼인상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유입경로 역시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혼인상태의 변화, 그리고 개인적 편의와 자유를 위해 유입되는 비중이 높았다.

□ 혼자 살아가는 어려움: 경제적 불안감, 위급할 때의 대처, 외로움, 안전

1인가구의 혼자 살아가는 주된 어려움으로는 혼자 생활하면서 갖는 주된 어려움은 경제적 불안감(31.0%)과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어려움(24.1%), 외로움(22.0%)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불안(2.2%)은 두드러지게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성별과 세대를 막론하고 1인가구의 공통된 어려움은 경제적 불안감으로 나타나 경제상태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특히, 남성 1인가구 중 안전(성폭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비중은 0.8%에 불과하였으나, 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10.3%p 높은 11.2%로 나타나 가장 뚜렷한 성별차이를 보였다. 또한 여성 1인가구 중에서도 청년여성 1인가구가 가장 안전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려 21.7%가 안전에 대한 불안을 지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고령세대로 이동할수록 외로움과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아져 이들에 대한 긴급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표.29〉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혼자 사는 어려움(1순위)

(단위: 명,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총합
1인가구		930	661	724	73	64	184	66	9	94	159	36	3,000
		31.0	22.0	24.1	2.4	2.1	6.1	2.2	0.3	3.1	5.3	1.2	100.0
남성	1인가구	438	406	315	38	57	12	31	6	48	99	19	1,469
		29.8	27.6	21.4	2.6	3.9	0.8	2.1	0.4	3.3	6.7	1.3	100.0
여성	1인가구	492	255	409	35	7	172	35	3	46	60	17	1,531
		32.1	16.7	26.7	2.3	0.5	11.2	2.3	0.2	3.0	3.9	1.1	100.0
남성	청년	252	194	123	19	34	7	9	2	38	53	8	739
		34.1	26.3	16.6	2.6	4.6	1.0	1.2	0.3	5.1	7.2	1.1	100.0
	중장년	128	146	139	15	20	5	7	4	9	38	9	520
		24.6	28.1	26.7	2.9	3.9	1.0	1.4	0.8	1.7	7.3	1.7	100.0
	고령	58	66	53	4	3	0	15	0	1	8	2	210
		27.6	31.4	25.2	1.9	1.4	0.0	7.1	0.0	0.5	3.8	1.0	100.0
여성	청년	204	89	146	11	6	148	5	3	30	30	9	681
		30.0	13.1	21.4	1.6	0.9	21.7	0.7	0.4	4.4	4.4	1.3	100.0
	중장년	154	53	95	19	1	17	11	0	8	24	2	384
		40.1	13.8	24.7	5.0	0.3	4.4	2.9	0.0	2.1	6.3	0.5	100.0
	고령	134	113	168	5	0	7	19	0	8	6	6	466
		28.8	24.3	36.1	1.1	0.0	1.5	4.1	0.0	1.7	1.3	1.3	100.0

①경제적 불안감 ②외로움 ③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어려움 ④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 시선 ⑤성(性)적인 문제 해결 ⑥안전(성폭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 ⑦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불안감 ⑧자녀를 갖기 어려움 ⑨주거관리(시설교체 등)의 어려움 ⑩함께 살지 않는 가족(부모 등)에 대한 걱정 ⑪기타

□ 향후 원하는 가구형태: 10가구 중 3가구 혼인, 2가구는 지금처럼 혼자, 비혈연가구와의 결합에 긍정적

서울시 1인가구의 35.8%는 향후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여 함께 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처럼 1인가구를 유지하고자 하는 비중도 23.7%를 차지하였다. 즉, 1인가구는 결혼으로의 이행과정에 있기도 하며 1인가구를 지속하기를 희망하기도 하는 복합적 형태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 1인가구는 결혼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 1인가구는 1인가구를 지속하거나 비혈연(非血緣)가구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이 관찰되었다. 특히, 친구,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에 있어 남성 1인가구는 8.4%, 여성 1인가구 11.2%로 나타나 비혈연가구에 더욱 긍정적이었다.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남성 1인가구는 55.2%였으며, 청년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6.7%p 낮은 48.5%로 나타나 청년 1인가구의 절반 수준만이 결혼을 희망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고령 1인가구의 원가족과의 재결합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어려움과 외로움이 높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받기 위해 원가족과의 재결합을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30>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향후 원하는 가구형태

(단위: 명, %)

구분	지금처럼 혼자	원래의 가족과 함께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	친구 등 친한 사람들과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잘 모르겠음	기타	총합	
1인가구	711 23.7	366 12.2	1,074 35.8	104 3.5	190 6.3	532 17.7	23 0.8	3,000 100.0	
남성 1인가구	298 20.3	172 11.7	627 42.7	45 3.1	78 5.3	241 16.4	8 0.5	1,469 100.0	
여성 1인가구	413 27.0	194 12.7	447 29.2	59 3.9	112 7.3	291 19.0	15 1.0	1,531 100.0	
남성	청년	130 17.6	62 8.4	408 55.2	23 3.1	24 3.3	89 12.0	3 0.4	739 100.0
		130 25.0	68 13.1	195 37.5	14 2.7	36 6.9	76 14.6	1 0.2	520 100.0
	고령	38 18.1	42 20.0	24 11.4	8 3.8	18 8.6	76 36.2	4 1.9	210 100.0
		168 24.7	66 9.7	330 48.5	25 3.7	35 5.1	54 7.9	3 0.4	681 100.0
여성	청년	113 29.4	49 12.8	87 22.7	19 5.0	52 13.5	62 16.2	2 0.5	384 100.0
		132 28.3	79 17.0	30 6.4	15 3.2	25 5.4	175 37.6	10 2.2	466 100.0

□ 1인가구로 인한 차별과 무시 경험: 결혼강요, 무능력자로 인식

서울시 1인가구의 53.5%는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한 편견, 차별, 무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결혼강요(15.2%)와 무능력자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선(13.6%), 주택마련 등 복지서비스에서 제외(11.9%)가 가장 많았다. 최근 1인가구를 다루는 언론이나 세미나, 포럼 등에서 1인가구를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실이 이러한 결과를 대변한다.

여성 1인가구는 주로 지속적인 결혼강요(15.8%)와 주택마련 등 복지서비스에서 제외(12.2%), 무능력자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선(12.0%)이 차별의 주요 형태였다. 또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성희롱 경험비중은 1.5%를 보인 남성 1인가구와 달리 6.2%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남성 1인가구는 지속적인 결혼강요(14.5%)보다 무능력자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선(15.2%)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세대별로 차별이나 무시의 경험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청년 1인가구는 주로 지속적인 결혼강요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후 세대의 경우 무능력자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선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청년여성 1인가구의 22.0%가 지속적인 결혼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남성 1인가구 역시 16.8%로 조사되었다. 1인가구에 대해 무능력자 또는 문제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결혼을 강요하는 결과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가 다인가구만을 정상가구로 여기며 1인가구는 비정상적인 가구 형태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31>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편견, 차별, 무시 받은 경험

(단위: 명, %)

구분	무능력자, 문제 있는 사람으로 인식	지속적인 결혼강요	성희롱	소득 공제에서 제외	복지 서비스 제외	기타	없음	총합	
1인가구	497	556	145	304	436	25	1,703	3,666	
	13.6	15.2	4.0	8.3	11.9	0.7	46.5	100.0	
남성 1인가구	269	256	27	144	204	11	857	1,769	
	15.2	14.5	1.5	8.1	11.5	0.6	48.5	100.0	
여성 1인가구	228	300	118	160	232	14	846	1,898	
	12.0	15.8	6.2	8.4	12.2	0.7	44.6	100.0	
남성	청년	96	148	18	73	103	1	442	881
		10.9	16.8	2.0	8.3	11.7	0.1	50.2	100.0
	중장년	123	103	7	63	91	5	274	666
		18.5	15.5	1.1	9.5	13.7	0.8	41.1	100.0
	고령	50	5	2	8	10	5	141	221
		22.6	2.3	0.9	3.6	4.5	2.3	63.8	100.0
여성	청년	67	197	69	104	137	5	318	897
		7.5	22.0	7.7	11.6	15.3	0.6	35.5	100.0
	중장년	104	77	33	41	74	3	173	505
		20.6	15.3	6.5	8.1	14.7	0.6	34.3	100.0
	고령	57	26	16	15	21	6	355	496
		11.5	5.2	3.2	3.0	4.2	1.2	71.6	100.0

□ 1인가구 생활의 만족도: 10가구 중 7가구는 현재의 삶에 만족

서울시 1인가구는 혼자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3.2%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현재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특히 남성 1인가구는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청년남성 1인가구의 69.3%, 청년여성 1인가구 77.0%가 현재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중장년남성 1인가구 64.2%, 중장년여성 77.1%였다. 고령 1인가구의 만족도는 이보다 더욱 감소하여 고령남성 1인가구 43.9%, 고령여성 1인가구 63.1%를 보였다.

〈표.32〉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삶의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총합
1인가구		134	669	1,753	444	3,000
		4.5	22.3	58.4	14.8	100.0
남성 1인가구		89	362	822	196	1,469
		6.1	24.6	56.0	13.3	100.0
여성 1인가구		45	307	931	248	1,531
		2.9	20.1	60.8	16.2	100.0
남성	청년	23	124	471	121	739
		3.1	16.8	63.7	16.4	100.0
	중장년	31	155	269	65	520
		6.0	29.8	51.7	12.5	100.0
	고령	35	83	82	10	210
		16.7	39.5	39.1	4.8	100.0
여성	청년	4	88	444	145	681
		0.6	12.9	65.2	21.3	100.0
	중장년	14	74	235	61	384
		3.7	19.3	61.2	15.9	100.0
	고령	27	145	252	42	466
		5.8	31.1	54.1	9.0	100.0

2. 주거환경

□ 주거형태: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은 연립/다세대, 원룸/고시원 거주

1인가구가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크게 소득수준과 주거로 볼 수 있다. 특히, 주거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인으로 비탄력적 수요를 가진 재화이다. 조사결과, 서울시 1인가구는 여러 주거형태 중 열악한 환경으로 분류되는 연립/다세대, 원룸/고시원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1인가구 중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비중은 31.4%였으며, 원룸/고시원 거주비중은 22.6%, 아파트 21.4%, 오피스텔 14.2%, 단독주택 9.1%, 기타 1.3%의 순이었다.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보다 전반적으로 더 나은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다. 남성 1인가구의 29.3%는 가장 취약한 주거형태로 알려진 원룸/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13.2%p 낮은 16.1%로 조사되었다. 특히, 주거환경은 안전문제와 직결되는데, 안전에 민감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초년생으로 구성된 청년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하였는데, 청년남성 1인가구의 37.6%, 청년여성 1인가구의 30.4%가 고시원/원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주거비 경감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표.33〉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주거형태

(단위: 명, %)

구분		단독	연립/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원룸	기타	총합
1인가구		274	942	641	427	677	39	3,000
		9.1	31.4	21.4	14.2	22.6	1.3	100.0
남성 1인가구		131	389	284	222	430	13	1,469
		8.9	26.5	19.3	15.1	29.3	0.9	100
여성 1인가구		143	553	357	205	247	26	1,531
		9.3	36.1	23.3	13.4	16.1	1.7	100
남성	청년	52	174	95	136	278	4	739
		7.0	23.6	12.9	18.4	37.6	0.5	100
	중장년	36	158	129	77	118	2	520
		6.9	30.4	24.8	14.8	22.7	0.4	100
	고령	43	57	60	9	34	7	210
		20.5	27.1	28.6	4.3	16.2	3.3	100
여성	청년	24	209	72	158	207	11	681
		3.5	30.7	10.6	23.2	30.4	1.6	100
	중장년	29	145	143	33	27	7	384
		7.6	37.8	37.2	8.6	7.0	1.8	100
	고령	90	199	142	14	13	8	466
		19.3	42.7	30.5	3.0	2.8	1.7	100

□ 주거형태: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은 연립/다세대, 원룸/고시원 거주

서울시 1인가구의 31.7%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글세에 거주하는 비중은 8.3%로 가장 낮았다. 가장 안정적인 점유유형인 자가 비중은 18.2% 수준이었다. 또한 매달 주거비를 지출해야 하는 점유유형인 반전세(9.2%), 보증금이 있는 월세(31.7%), 사글세(8.3%)에 거주하는 비중도 49.2%에 달하고 있었다. 즉, 서울시 1인가구 81.8%는 주거불안정에 노출되어 있음과 동시에 10가구 중 5가구는 지속적인 주거비 지출로 인해 단장기적 경제적 불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주거불안정성은 고령세대보다 청년세대에서 특히 심각하다.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청년남성 1인가구 55.8%, 청년여성 1인가구 56.3%는 보증금 월세 또는 사글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환경과 주거안정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34>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점유유형

(단위: 명, %)

구분		자가	전세	반전세	보증금 월세	사글세	임대무상 기타	총합
1인가구		546	825	275	950	250	154	3,000
		18.2	27.5	9.2	31.7	8.3	5.1	100.0
남성 1인가구		244	366	133	479	176	71	1,469
		16.6	24.9	9.1	32.6	12.0	4.8	100
여성 1인가구		302	459	142	471	74	83	1,531
		19.7	30.0	9.3	30.7	4.8	5.4	100.0
남성	청년	67	162	79	328	84	19	739
		9.1	21.9	10.7	44.4	11.4	2.6	100.0
	중장년	112	155	37	118	67	31	520
		21.5	29.8	7.12	22.7	12.9	6.0	100.0
고령	65	49	17	33	25	21	210	
	31.0	23.3	8.1	15.7	11.9	10	100.0	
여성	청년	44	167	70	332	51	17	681
		6.5	24.5	10.3	48.8	7.5	2.5	100.0
	중장년	103	118	48	80	10	25	384
		26.8	30.7	12.5	20.8	2.6	6.5	100.0
고령	155	174	24	59	13	41	466	
	33.3	37.3	5.2	12.7	2.8	8.8	100.0	

□ 주거면적: 서울시 1인가구 8.3% 최소주거면적 이하 거주

남성 1인가구는 여성 1인가구보다 좁은 주거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여성 1인가구의 최소주거면적 거주비중은 4.8%인 반면, 남성 1인가구는 약 2.5배 높은 12.1%였다. 여성 1인가구는 고령세대로 갈수록 최소주거면적 이하 거주비중의 감소세가 뚜렷하였으나, 남성 1인가구는 변동이 없었다. 청년여성 1인가구의 최소주거면적 이하 거주비중은 7.3%였으나, 중장년여성 1인가구 2.9%, 고령여성 1인가구 2.6%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청년남성 1인가구 12.6%, 중장년남성 1인가구 11.5%, 고령남성 1인가구 11.4%로 감소추세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1인가구는 여성 1인가구보다 주거환경보다 비용을 크게 고려하는 특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35>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주거면적

(단위: 명, %)

구분		최소주거 면적이하	4.24-10평 이하	10-15평 이하	15-19평 이하	20평 이상	총합
1인가구		250	734	704	547	765	3,000
		8.3	24.5	23.5	18.2	25.5	100.0
남성 1인가구		177	385	320	210	377	1,469
		12.1	26.2	21.8	14.3	25.7	100.0
여성 1인가구		73	349	384	337	388	1,531
		4.8	22.8	25.1	22.0	25.3	100.0
남성	청년	93	266	159	81	140	739
		12.6	36.0	21.5	11.0	18.9	100.0
	중장년	60	94	113	95	158	520
		11.5	18.1	21.7	18.3	30.4	100.0
	고령	24	25	48	34	79	210
		11.4	11.9	22.9	16.2	37.6	100.0
여성	청년	50	262	174	109	86	681
		7.3	33.5	25.6	16.0	12.6	100.0
	중장년	11	46	101	91	135	384
		2.9	12.0	26.3	23.7	35.2	100.0
	고령	12	41	109	137	167	466
		2.6	8.8	23.4	29.4	35.8	100.0

□ 세입자 경험: 시설 수리 등을 요구하고 싶어도 세입자라 요구하기 어려움

서울시 1인가구의 76.7%는 세입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바꿔 말하면, 임대차계약의 만료 시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 보증금 및 월세인상이 결정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는 흔히 말하는 갑-을(甲-乙)관계가 성립된다. 이에 서울시 세입자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집주인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여성 혹은 남성으로 인한 집주인의 무시, 혼자 거주하기 때문에 무시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성별, 세대별 이러한 경험의 비중은 크게 낮았다. 그러나 시설 수리 등을 요구하고 싶어도 세입자라 요구하기 어렵다는 비중은 다소 높은 경험비중을 보였다. 조사결과, 서울시 1인가구의 48.1%는 시설 수리 등을 요구하고 싶어도 세입자라 요구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 여성 1인가구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결과를 보였다.

<표.36> 시설 수리 등을 요구하고 싶어도 세입자라 요구하기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합
1인가구		206	934	560	670	2,370
		8.7	39.4	23.6	28.3	100.0
남성 1인가구		62	410	320	390	1,182
		5.3	34.7	27.1	33.0	100.0
여성 1인가구		144	524	240	280	1,188
		12.1	44.1	20.2	23.6	100.0
남성	청년	39	233	176	215	663
		5.9	35.1	26.6	32.4	100.0
	중장년	18	120	115	132	385
		4.7	31.2	29.9	34.3	100.0
고령	5	57	29	43	134	
	3.7	42.5	21.6	32.1	100.0	
여성	청년	98	270	124	135	627
		15.6	43.1	19.8	21.5	100.0
	중장년	24	127	60	56	267
		9.0	47.6	22.5	21.0	100.0
고령	22	127	56	89	294	
	7.5	43.2	19.1	30.3	100.0	

□ 공동체주거: 사생활보장의 어려움, 다른 사람과의 마찰방지를 위한 규율필요

서울시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공동체주택의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동체주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1인가구 중 공동체주거에 대해 신청방법, 비용, 종류, 주거형태 등에 대해 알고 있는 비중은 7.6%에 그쳤으며, 주거형태와 비용을 아는 비중은 28.4%였다. 또한 언론 등을 통해 공동체주거를 들어본 적만 있다는 응답자는 35.7%였으며, 모른다는 응답도 28.3%에 달했다.

공동체주거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사회적 관계망 지지에 있어서, 공동체주거의 거주가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비중은 64.5%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시 1인가구의 78.6%가 공동체주거로 인해 사생활 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였으며 특히, 청년세대와 여성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공동체주거로 인해 예상되어지는 문제는 사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으로 인한 갈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1인가구의 79.7%가 다른 사람과의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어려움으로 꼽으며, 사생활보장의 어려움보다 더 큰 비중을 보였다.

공동체주거를 위한 2순위로는 개인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주거 공간(25.0%)과 공동 거주를 위한 상호 이해와 자율적인 규칙(15.7%), 낮은 주거비용(11.6%), CCTV, 방범창, 도어락 등 안전시설의 마련(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비용의 문제를 기본으로 사생활보장을 위한 공간과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방지할 수 있는 규칙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차이에 있어서 남성 1인가구는 여성 1인가구에 비해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여성 1인가구는 안전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평균 수준의 원룸보다 넓은 거주 공간을 필요로 하는 여성 1인가구는 7.7%에 불과하였으나, 남성 1인가구는 이보다 7.7%p 높은 13.9%였다. 반면, CCTV, 방범창, 도어락 등 안전시설의 마련을 요구한 여성 1인가구의 비중은 14.3%, 남성 1인가구는 8.9%였다. 공동체주거를 함에 있어 낮은 비용, 사생활보장뿐만 아니라 주거면적과 안전환경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이뿐만 아니라 고령 1인가구는 다른 세대보다 공동체주거를 위해 문화시설, 의료시설과 근접한 위치가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문화 및 의료시설과의 접근성을 요구한 청년남성 1인가구는 2.0%에 불과하였으나, 중장년남성 1인가구 4.5%, 고령남성 1인가구 9.0%로 증가하였다. 또한 청년여성 1인가구 1.9%, 중장년여성 1인가구 6.6%, 고령여성 1인가구 11.1%로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문화시설 및 의료시설과의 접근성 필요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서울시민의 공동체주거에 관한 사업시행 시 이러한 1인가구의 요구를 고려한 공급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37>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공동체주거를 위해 필요한 점(2순위)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총합	
1인가구	341	274	736	317	342	325	143	462	8	2,948	
	11.6	9.3	25.0	10.8	11.6	11.0	4.9	15.7	0.3	100.0	
남성 1인가구	148	143	380	201	128	174	56	215	2	1,447	
	10.2	9.9	26.3	13.9	8.9	12.0	3.9	14.9	0.1	100.0	
여성 1인가구	193	131	356	116	214	151	87	247	6	1,501	
	12.9	8.7	23.7	7.7	14.3	10.1	5.8	16.5	0.4	100.0	
남성	청년	84	80	207	97	79	86	15	85	1	734
		11.4	10.9	28.2	13.2	10.8	11.7	2.0	11.6	0.1	100.0
	중장년	47	44	131	68	31	56	23	111	1	512
		9.2	8.6	25.6	13.3	6.1	10.9	4.5	21.7	0.2	100.0
	고령	17	19	42	36	18	32	18	19	0	201
		8.5	9.5	20.9	17.9	9.0	15.9	9.0	9.5	0.0	100.0
여성	청년	89	42	179	58	106	51	13	142	0	680
		13.1	6.2	26.3	8.5	15.6	7.5	1.9	20.9	0.0	100.0
	중장년	44	30	89	28	58	42	25	65	0	381
		11.6	7.9	23.4	7.4	15.2	11.0	6.6	17.1	0.0	100.0
	고령	60	59	88	30	50	58	49	40	6	440
		13.6	13.4	20.0	6.8	11.4	13.2	11.1	9.1	1.4	100.0

① 낮은 주거비용(월세, 보증금 등) ②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 ③ 개인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넓은 거주 공간 ④ 평균 수준의 원룸보다 넓은 거주 공간 ⑤ CCTV, 방범창, 도어락 등 안전시설의 마련 ⑥ 교통이 편리한 위치 ⑦ 문화시설, 의료시설과 근접한 위치 ⑧ 공동 거주를 위한 상호 이해와 자율적인 규칙 ⑨ 기타 ()

3. 경제상태

□ 월평균소득: 서울시 1인가구의 31.6% 최저임금이하 저소득층

가족의 지원, 추가 근로소득, 공적 부조 등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 1인가구 월평균 총소득에 있어서 무려 31.6%가 최저임금이하 소득수준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령남성 1인가구의 57.6%, 고령여성의 65.0%가 최저임금이하를 보여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청년남성 1인가구 24.9%, 청년여성 1인가구 23.9% 역시 열악한 경제상태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수준은 주거, 안전, 건강, 여가, 사회적 관계망 등 생활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요구된다.

〈표.38〉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월평균소득

(단위: 명, %)

구분		최저 임금 이하	135- 200만원 미만	200- 250만원 미만	250-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총합
1인가구		948 31.6	510 17	531 17.7	326 10.8	685 22.8	3,000 100.0
남성 1인가구		406 27.6	225 15.3	247 16.8	175 11.9	416 28.3	1,469 100
여성 1인가구		542 35.4	285 18.6	284 18.6	151 9.9	269 17.6	1,531 100
남성	청년	184 24.9	126 17.1	156 21.1	89 12.0	184 24.9	739 100
		101 19.4	58 11.2	79 15.2	76 14.6	206 39.6	520 100
	고령	121 57.6	41 19.5	12 5.7	10 4.76	26 12.4	210 100
		163 23.9	138 20.3	175 25.7	83 12.2	122 17.9	681 100
여성	청년	76 19.8	88 22.9	70 18.2	50 13.0	100 26.0	384 100
		303 65.0	59 12.7	39 8.4	18 3.9	47 10.1	466 100

□ 월평균소득대비 월평균지출: 주거관련 지출의 높은 비중

1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소득대비 지출비중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1인가구의 월평균소득 중 저축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7.2%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부양비(21.6%), 부채상환(20.2%), 주거비(19.0%)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주택마련이 주된 원인인 부채상환과 월세, 사글세 등의 주거비 즉, 주거관련 지출이 39.2%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청년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는 월평균소득 중 월평균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고령 1인가구는 부채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중 고령남성 1인가구는 부채상환(28.5%) 다음으로 주거비(27.3%), 자녀부양비(26.5%), 월평균저축액(25.4%) 등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39>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항목별 소득대비 지출비중

(단위: 만원, 명)

구분	월평균 저축액	여가 생활비	자기 개발비	교제 및 사고비	부모 부양비	자녀 부양비	주거비	부채 상환	총지출	
1인가구	27.2	12.1	8.9	13.8	12.2	21.6	19.0	20.2	70.5	
	1,825	1,971	1,358	2,029	870	361	2,355	543	2,664	
남성 1인가구	27.7	13.6	10.1	15.7	11.9	24.7	19.9	19.6	73.9	
	857	960	657	980	455	173	1,140	292	1,310	
여성 1인가구	26.8	10.8	7.8	12.0	12.5	18.7	18.2	20.9	67.1	
	968	1,011	701	1,049	415	188	1,215	251	1,354	
남성	청년	28.1	14.6	11.7	15.3	10.9	17.6	19.7	17.5	74.5
		474	560	415	513	229	41	577	122	684
	중장년	27.6	10.8	6.0	14.4	12.7	27.0	17.7	19.9	73.8
		317	333	205	364	211	97	424	147	468
	고령	25.4	18.8	13.8	22.0	15.4	26.5	27.3	28.5	71.6
		66	67	37	103	15	35	139	23	158
여성	청년	26.5	11.0	8.5	11.9	11.1	9.7	17.0	16.8	67.6
		504	601	446	555	189	19	575	124	658
	중장년	27.1	8.0	6.3	9.2	12.2	18.1	14.1	20.5	67.8
		303	254	175	297	182	100	339	90	365
	고령	26.8	14.5	7.3	16.3	19.2	22.0	25.1	35.6	65.2
		161	156	80	197	44	69	301	37	331

4. 사회적 관계망

□ 고민상담 상대의 수: 서울시 1인가구의 25.8%는 사회적 고립

1인가구는 혼자 거주하는 특성으로 인해 모든 사회적 관계가 고립된 집단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인가구는 동호회, 친구만남, 지역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통해 관계망을 유지하기도 하며, 일부는 사회적 고립을 보이기도 한다. 즉, 1인가구는 모두 고립된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활발한 관계망을 지닌 집단과 고립된 집단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을 통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고립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본인의 속마음, 고민 등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사회적 고립으로 보았다.

서울시 1인가구 중 현재 본인의 문제를 걱정거리를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25.8%로 가장 높았으며, 2명(21.5%), 3명(19.3%), 5명 이상(16.9%)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남성 1인가구

의 사회적 고립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주로 청년세대보다 이후의 중장년 및 고령세대에서 두드러지는 결과를 보였다. 본인문제나 걱정거리를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청년남성 1인가구 27.6%였으나, 중장년남성 1인가구 32.5%, 고령남성 1인가구 42.9%로 높아졌다. 청년여성 1인가구 역시 14.1%로 가장 낮았으나, 중장년여성 1인가구 21.9%, 고령여성 1인가구 27.9%로 높아졌다. 그러나 남성 1인가구에 비해 고립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표.40>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고민상담 할 수 있는 사람의 수

(단위: 명, %)

구분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총합
1인가구		773	314	646	580	180	507	3,000
		25.8	10.5	21.5	19.3	6.0	16.9	100.0
남성 1인가구		463	132	296	251	71	256	1,469
		31.5	9.0	20.2	17.1	4.8	17.4	100.0
여성 1인가구		310	182	350	329	109	251	1,531
		20.3	11.9	22.9	21.5	7.1	16.4	100.0
남성	청년	204	56	142	135	35	167	739
		27.6	7.6	19.2	18.3	4.7	22.6	100.0
	중장년	169	58	109	89	23	72	520
		32.5	11.2	21.0	17.1	4.4	13.9	100.0
	고령	90	18	45	27	13	17	210
		42.9	8.6	21.4	12.9	6.2	8.1	100.0
여성	청년	96	69	138	160	47	171	681
		14.1	10.1	20.3	23.5	6.9	25.1	100.0
	중장년	84	48	106	88	20	38	384
		21.9	12.5	27.6	22.9	5.2	9.9	100.0
	고령	130	65	106	81	42	42	466
		27.9	14.0	22.8	17.4	9.0	9.0	100.0

□ 고민상담 상대의 수: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고립

최저임금이하 수준의 소득을 가진 집단 중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보이는 비중은 32.7%였으며 135-200만원 미만 24.4%, 200-250만원 미만 21.1%, 250-300만원 미만 19.8%, 300만원 이상 20.7%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고립의 비중은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소득수준과 고민상담 상대 수는 모두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여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표.41〉 서울시 1인가구 소득수준별 고민상담 할 수 있는 사람의 수

(단위: 명, %)

구분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총합
최저임금이하	365	130	210	179	64	168	1,116
	32.7	11.7	18.8	16.0	5.7	15.1	100.0
135-200만원 미만	122	64	108	100	36	70	500
	24.4	12.8	21.6	20.0	7.2	14.0	100.0
200-250만원 미만	111	51	120	110	28	105	525
	21.1	9.7	22.9	21.0	5.3	20.0	100.0
250-300만원 미만	61	26	82	65	21	53	308
	19.8	8.4	26.6	21.1	6.8	17.2	100.0
300만원 이상	114	43	126	126	31	111	551
	20.7	7.8	22.9	22.9	5.6	20.2	100.0

□ 사회적 고립의 해소와 1인가구 삶의 만족도

고민상담 상대가 없는 고립된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의 만족하지 않는 비중은 38.0%였으나, 1명인 경우 33.8%, 2명 24.5%, 3명 20.3%, 4명 26.7%, 5명 이상 15.6%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고민상담 상대의 수가 많은 경우 1인가구 생활의 만족도도 높은 결과를 보였다. 고민상담 상대의 수와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5점 척도)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표.42〉 서울시 1인가구 고민상담 상대 수 별 삶의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총합
없음	69	225	386	93	773
	8.9	29.1	49.9	12.0	100.0
1명	15	91	169	39	314
	4.8	29.0	53.8	12.4	100.0
2명	20	138	382	106	646
	3.1	21.4	59.1	16.4	100.0
3명	14	104	371	91	580
	2.4	17.9	64.0	15.7	100.0
4명	5	43	101	31	180
	2.8	23.9	56.1	17.2	100.0
5명 이상	11	68	344	84	507
	2.2	13.4	67.9	16.6	100.0

□ 고민상담의 상대: 주로 친구 및 이웃(65.1%), 부모는 9.0%에 불과

고민상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1인가구는 고민상담의 대상에 있어서 이웃(65.1%)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부모(9.0%), 형제/자매(8.0%), 자녀(5.2%), 배우자(2.0%)로 조사되었다. 즉, 개인의 걱정 혹은 고민거리 상담은 혈연가구보다 비혈연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비혈연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망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와의 고민상담 비중이 낮음은

원가족과의 관계 개선 또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43>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고민상담 상대

(단위: 명, %)

구분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자 녀	친구 및 이웃	직장 동료	선 후 배	전문 상담가	성 직 자	기 타	총 합	
1인가구	200	44	179	116	1,449	96	69	13	17	44	2,227	
	9.0	2.0	8.0	5.2	65.1	4.3	3.1	0.6	0.8	2.0	100.0	
남성 1인가구	86	30	63	18	688	49	44	3	6	19	1,006	
	8.6	3.0	6.3	1.8	68.4	4.9	4.4	0.3	0.6	1.9	100.0	
여성 1인가구	114	14	116	98	761	47	25	10	11	25	1,221	
	9.3	1.2	9.5	8.0	62.3	3.9	2.1	0.8	0.9	2.1	100.0	
남성	청년	72	5	25	3	377	23	15	1	2	12	535
		13.5	0.9	4.7	0.6	70.5	4.3	2.8	0.2	0.4	2.2	100.0
	중장년	14	12	32	2	232	25	25	0	3	6	351
		4.0	3.4	9.1	0.6	66.1	7.1	7.1	0.0	0.9	1.7	100.0
	고령	0	13	6	13	79	1	4	2	1	1	120
		0.0	10.8	5.0	10.8	65.8	0.8	3.3	1.7	0.8	0.8	100.0
여성	청년	79	3	49	0	392	20	16	5	3	18	585
		13.5	0.5	8.4	0.0	67.0	3.4	2.7	0.9	0.5	3.1	100.0
	중장년	21	6	46	14	177	21	5	1	5	4	300
		7.0	2.0	15.3	4.7	59.0	7.0	1.7	0.3	1.7	1.3	100.0
	고령	14	5	21	84	192	6	4	4	3	3	336
		4.2	1.5	6.3	25.0	57.1	1.8	1.2	1.2	0.9	0.9	100.0

□ 사회적 관계망: 부모는 월 1회(간헐적, 또는 명절)이하 만남, 친구 월2-3회

서울시 1인가구 중 친구와 만남이 없는 비중은 9.4%에 불과하였으며, 월 2-3회(34.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월 4회 이상(32.5%), 월 1회 이하(23.1%)의 순으로 나타나 친구만남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1인가구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있다는 기존의 논의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령 1인가구의 친구만남 비중이 낮았으며, 그 중에서도 중장년남성 1인가구의 소통없음 비중이 높아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부모만남의 비중은 월 1회 이하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원가족과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의 필요와 동시에 비혈연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44>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친구 직접만남 빈도

(단위: 명, %)

구분		월 4회 이상	월2-3회	월 1회 이하	소통 없음	총합
1인가구		976	1,048	694	282	3,000
		32.5	34.9	23.1	9.4	100.0
남성 1인가구		444	509	357	159	1,469
		30.2	34.7	24.3	10.8	100.0
여성 1인가구		532	539	337	123	1,531
		34.8	35.2	22.0	8.0	100.0
남성	청년	273	240	167	59	739
		36.9	32.5	22.6	8.0	100.0
	중장년	134	180	145	61	520
		25.8	34.6	27.9	11.7	100.0
	고령	37	89	45	39	210
		17.6	42.4	21.4	18.6	100.0
여성	청년	283	235	134	29	681
		41.6	34.5	19.7	4.3	100.0
	중장년	96	134	123	31	384
		25.0	34.9	32.0	8.1	100.0
	고령	153	170	80	63	466
		32.8	36.5	17.2	13.5	100.0

□ 소득수준과 사회적 관계망: 소득수준과 친구, 부모만남은 양(+)의 관계

친구와의 만남횟수와 소득수준의 관계에 있어 월 4회 이상 친구만남은 소득수준과 눈에 띄는 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나,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통 없음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1인가구 중 친구와 소통이 없는 비중은 5.6%, 250-300만원 미만 5.2%, 200-250만원 미만 5.9%로 소득이 내려감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으며, 135-200만원 미만 10.2%, 최저임금이하 13.7%로 관찰되었다. 즉, 소득수준은 고민상담 상대의 수와 더불어 가장 만남이 잦은 친구와의 만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요인인 것이다.

<표.45> 서울시 1인가구 소득수준별 친구만남 빈도

(단위: 명, %)

구분	월 4회 이상	월2-3회	월 1회 이하	소통 없음	총합
최저임금 이하	387	354	222	153	1,116
	34.7	31.7	19.9	13.7	100.0
135-200만원 미만	158	168	123	51	500
	31.6	33.6	24.6	10.2	100.0
200-250만원 미만	168	192	134	31	525
	32.0	36.6	25.5	5.9	100.0
250-300만원 미만	91	121	80	16	308
	29.6	39.3	26.0	5.2	100.0
300만원 이상	172	213	135	31	551
	31.2	38.7	24.5	5.6	100.0

〈표.46〉 서울시 1인가구 월평균소득-부모, 자녀, 친구, 이웃만남 상관관계

구분	월평균소득	부모만남	자녀만남	친구만남	이웃만남
월평균소득	1	-	-	-	-
부모만남	0.222***	1	-	-	-
자녀만남	-0.206***	-0.39***	1	-	-
친구만남	0.037**	0.22***	0.026	1	-
이웃만남	-0.131***	-0.17***	0.361***	0.150***	1

*p<.01, **p<.05, ***p<.01

□ 사회적 관계망과 정신건강, 신체건강은 양(+)의 관계

주관적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은 소득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 경우로 성립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의 경우 신체 및 정신건강에 취약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은 고민상담 상대의 수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여 사회적 관계망에 있어 신체와 정신건강이 중요함을 드러냈다. 따라서 1인가구 고립의 해소를 위해 가장 건강증진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47〉 서울시 1인가구 월평균소득, 신체건강, 고민상담 상대의 수 상관관계

구분	월평균소득	고민상담 상대 수	신체건강	정신건강
월평균소득	1	-	-	-
고민상담 상대 수	0.105***	1	-	-
신체건강	0.118***	0.178***	1	-
정신건강	0.063***	0.189***	0.658***	1

*p<.01, **p<.05, ***p<.01

□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성: 우울감, 안전과 밀접한 관계

고민상담 상대의 수, 즉 사회적 관계망은 우울감 경험 빈도와 음(-)의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주거지에서의 안전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1인가구의 우울감, 넓은 범위로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자조모임 등을 통한 안전 확보를 가능하게 함을 의미한다. 실제 서울시 1인가구의 인터뷰 결과 청년여성 1인가구 중 자조모임을 통해 귀갓길 안전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1인가구에게 중요한 것은 주거, 일자리(경제)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되는 바이다.

<표.48> 우울감, 주거면적, 고민상담 상대의 수, 일상생활 및 주거지 안전정도, 월평균소득 상관관계

	우울감 경험빈도	주거면적	고민상담 상대의 수	일상생활 안전정도	주거지 안전정도	월평균소득
우울감 경험 빈도	1	-	-	-	-	-
주거면적	-0.054***	1	-	-	-	-
고민상담 상대의 수	-0.117***	-0.036**	1	-	-	-
일상생활 안전정도	0.198***	-0.096***	-0.078***	1	-	-
주거지 안전정도	0.152***	-0.175***	-0.055**	0.496***	1	-
월평균소득	-0.041**	0.112***	0.105***	-0.077***	-0.097***	1

*p<.01, **p<.05, ***p<.01

Ⅲ. 서울시 1인가구 지원정책의 방향

□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보장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임에 구애받음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자기부양과 돌봄이 가능해야만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부터 기초보장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고, 중위소득이상의 계층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돌봄에 서툰 1인 가구에게는 맞춤형 자기 돌봄의 노하우와 훈련의 기회가 제공된다면 충분히 자립적인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혹은 여성단독가구는 범죄나 유해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행이나 생활 편의의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한 주거보급이나 안전한 지역환경 구축 또한 중요하다. 또한 자립적인 1인 가구의 삶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활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또한 중요하다.

□ 개방적인 유대와 다양한 지지체계 구축

인간이 갖는 다양한 결속과 유대의 원천이 가족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오랜 세월 개인에 대한 일차적 안전망이자 사회적 위치 및 소속감의 원천으로 가족만을 강조해왔다. 다양성의 시대에는 가족이외에 다양한 소속감과 유대가 가능해야 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개방적인 공동체의식과 결속의 방식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구형태와 무관하게 다양한 취향과 취미, 여건에 부합되는 동호회 등의 사적 네트워크로부터 이웃 및 지역민으로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1인가구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느슨한 지지체계의 구축은 현대인들의 불안감이나 고립감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포용과 어울림의 기회 및 장(場)을 제공하고, 연령 및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안전한 지역 및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 셋째 다양한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라이프스타일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상호 관심사가 공유되지 않을 경우 배타적이거나 무관심한 사회분 위기가 강화되고 있다. 상이한 삶의 태도와 방식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배제 못지않게 무관심과 무시 또한 1인 가구에 대한 차별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문화의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가구 및 가족형태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만큼 가족 및 가구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통해 특정 가구·가족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가족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문 1

서울시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강남식 ■ 젠더와 인권연구소 소장

서울시 1인 가구 생활실태 및 정책 방향

강남식(젠더와 인권연구소 소장)

1. 연구 주제에 대해

- 심포지움 주제가 ‘변화하는 가족에 대응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속가능성과 혁신’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 심포지움 주제를 고려하면 변화하는 가족의 키워드이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형태인 1인 가구의 생활실태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 모색은 매우 시의적절함.

2. 연구 내용과 분석에 대해

2-1. 연구 내용에 대해

- 연구내용은 주로 서울시 1인 가구 생활실태에 대한 것으로, ‘1인 가구의 삶’, ‘주거환경’,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구 내용중 보강되어야 할 점은 ‘1인 가구가 된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 대략 세대별 1인 가구 유입 경로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간단한 언급만이 있음
 - 이는 1인 가구 정책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 제시에서 구체성이 결여될 수가 있음. 즉 서울시 1인 가구는 유입경로에 대해 성별, 세대별, 주거환경별 등에 따른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기반해 앞으로 예측되는 삶의 조건(1인가구 지속성 여부 등)과 상황을 고려한 주택이나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정책 모색과 제시가 실질화될 듯 함.

2-2. 연구 분석에 대해

- 연구분석은 성별과 세대별을 중심으로 분석
 - 여기에서 세대별 분석시 ‘청년’, ‘중장년’, ‘고령’ 이란 범주를 사용하였는데, 그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였으면 좋겠음(간단한 주처리 등). 이는 정책 모색시에서도 필요함.
- 1인 가구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10가구중 7가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 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짐. 즉 다른 가구형태와 비교해 만족도에 대한 분석이 보강되어할것 같음.
- 경제상태와 관련한(표 11) 분석에서 남성 1인가구중 가장 높은 월평균 소득수준은 300만원 이상 28.3%이고, 여성은 최저임금 이하로 35.4%를 차지하고 있었음.
 - 이와같은 소득수준이 의미하는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모색에는 성별에 대한 차별하는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

3. 정책 방향에 대해

○ 너무 간단하게 지원정책 방향만 제시함.

○ 앞으로 분석 범주인 ‘1인 가구의 삶’, ‘주거환경’,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망’ 등이든가, 성별 및 세대별로, 더 나아가 세대별로도 ‘청년’, ‘중장년’, ‘고령’ 등 분석 기준에 따른 교차분석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모색이 보강되어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혁신적이며 지속 가능한 정책 전달 체계로서 위치 설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듯함.

○ 특히 서구 선진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모색중이고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주거’에 대한 사례분석 등을 포함시켜 정책 모색이 실질적으로 제시되면 좋겠음

-1인 가구에서 공동체 가구로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1인 가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방향이기 때문임.

-이와함께 중장년 층이 원가족과 관계회복을 희망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임대차 보호법 강화 등의 정책 제안이 세부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토론문 2

강선미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정책팀 팀장

토론문 3

김수현 ■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토론문 4

오수현 ■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대표

시민이 바라본 다가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홍보에 대한 제언

오 수 현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대표)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로 가족의 유형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 가족, 재혼 가족,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외에도 입양 가족, 동성 가족, 동거 가족, 1인 가족, 졸혼 가족 등 신생어가 생길 정도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해 시행하기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요즘 비일비재한 비행청소년 문제 및 각종 잔혹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가족문화의 올바른 정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시의 가족 정책 인지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고, 개소 10년을 맞이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본 토론을 위해 토론자의 지인 가족 10가구에 대해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도 전혀 모르거나 들어본 적만 있는 가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성공적인 정책 실행 및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시 가족정책 현황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돌봄나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지역사회연계,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서울시,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치구청 등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어떠한 협업을 시행해 노력하는지에 대한 모형은 본 발제 자료를 통해 볼 수 없었습니다. 각 구청 게시판, 구민일보, 홈페이지, SNS를 통해서 혹은 서울가족축제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고는 하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홈페이지와 SNS, 야외 가족참여 행사를 자발적으로 찾고 검색해 이용하기엔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토론자는 돌봄, 일가족 양립, 가족(지원)서비스 등 정책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지도 향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바, 이용자 관점 측면에서 서울시 가족 정책 및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각 구청(내) 및 주민센터 인근에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가족지원서비스 노출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결혼적령기나 혼인초기 부부간, 부자간에 필요한 소통법을 먼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사들에게 안내하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구축하여 가정통신문 배포와 함께 교육기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방안을 홍보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도 가족구성원으로서 건강한 가정을 이끌고 교육과정에서도 활용한다면 더 좋은 인성교육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각 가정은 보다 보편적이고 쉽게 가족정책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미 활성화된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에 연계하여 교육시간에 센터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유도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맘스 카페를 설치하여, 가정주부 또는 주민 간 네트워킹 모임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들이 왕래하면서 보고 듣고 체험한 내용들이 입소문을 통해 홍보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봅니다.

4. 선거나 인구주택총조사 시 방송드라마에서 홍보하듯이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의 가족프로그램을 활용한 이용방법과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한편, 서울시 또는 여성가족부 차원에서의 공익광고의 필요성도 요구됩니다. 다양한 가족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바쁜 서울시민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였을 때, 문자 메시지 활용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능동적 참여 유도 및 정책 홍보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제시한 서울시 가족 정책 및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은 지극히 기초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제시한 이유는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절대적 이용자 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 기관과 연계해 정책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회복지혜택은 쓸림현상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건강한 가족문화가 자리 잡아야 사회면 기사가 훈훈한 내용으로 채워질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언론 매체를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가 문제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환경여건을 현실화하여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토론자는 이번 조사연구와 토론을 기회로 삼아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와 일부 서울시민만 인지하고 있는 가족 정책이 아닌 서울시민 전체가, 전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가족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무엇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서울시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시민으로서 지원하겠습니다.

2017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변화하는 가족에 대응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속가능성과 혁신”

- 발 행 일 : 2017년 9월 27일
- 발 행 인 : 김 명 신
- 발 행 처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4길 6(우.04628)
- 전 화 : (02)318-0227
- 팩 스 : (02)318-0228
- 홈페이지 : www.familyseoul.or.kr
- 이 메 일 : sfamilyc@hanmail.net

본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